

# 광주시 “관광객 유치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 여행업체 대상 차량·숙박비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유치보상금도 “비엔날레 등 연계 관광 육성”

광주시는 다양한 연계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2월까지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이다. 방문 인원, 광주의 주요 행사·축제

를 포함한 관광지·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은 차량비와 숙박비 등 2개로 나뉘어 이뤄진다.

차량비의 경우 차량상품을 4인~14인 이하 이용 땀 1박에 1인 3만원을, 15인 이상이 1박을 이용하면 60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한다.

철도·항공상품은 2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면 당일 1인 1만원, 1박일 경우 1인 3만원을 지원한다.

숙박비는 1박에 1인당 2만원을, 2박 이상일 경우 1인 4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업체가 4인 이상 14인 이하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차량비를 최대 1인 5만원(1박)을, 15인 이상이면 숙박비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타 사·도민 또는 외국인 4인 이상이 광주를 관광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당일 또는 1박 이상 숙박해야 한다.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도 지원한다.

150석 이상 전세기의 탑승률이 56% 이

상일 경우 체류비를 300만~500만원까지 지급하며, 55% 이하이거나 150석 미만 전세기는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 무안공항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차량비·숙박비 지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관광객 유치보상금과는 별도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00만원을, 1000명 이상(내·외국인 포함)을 유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우수 모객 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유치지원금이 지원되는 관광 프로그램

에는 광주비엔날레,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총장축제(버스커즈월드컵), 푸드페스타, 세계김치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타지인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 김영록 지사,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7개월째 1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8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일곱 번째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전달보다 3.9%포인트 오른 72.6%로 가장 높았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취임 첫 달부터 7개월 연속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긍정평가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4.0%),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9.0%)가 차지했다. 김두겸 울산광역

시장(58.5%)은 4위, 김동연 경기지사(56.3%)는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56.1%), 김태흠 충남지사(55.3%), 박형준 부산시장(54.7%), 김진태 강원지사(54.1%), 김영환 충북지사(53.5%) 등의 순이었다.

7개월 연속 부동의 1위를 유지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7기 때도 43개월 중 30번 1등을 차지할 만큼 도민들로부터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2년 12월26일~2023년 1월1일, 1월25일~2월1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박상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14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동부권 기업인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도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포스코광양제철소, LG화학(주), (주)포스코케미칼, 에스케이이엔에스(주), 광양항운(주), 광양·순천 상공회의소, 여수 경영인협회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전기자동차 4297대 보조금 지원... 449억원 투입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49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4297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 3074대, 화물 1195대, 승합 28대다. 전년도 지원 물량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2895대(승용 1877·화물 1000·승합 18대)를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7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이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광주시

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가,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이 접수해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 전남도, 동부권 기업인과 최신 경영정보 공유

광양서 경제마당... 100여명 참석 기업 간 네트워킹·애로사항 청취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2023년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열어 동부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최신 경제·경영 정보를 공유했다.

경제마당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주)포스코광양제철소, LG화학(주), (주)포스코케미칼, 에스케이이엔에스(주), OCI(주), 광양항운(주) 등 지역 기업인, 광양·순천 상공회의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남지회, 여수 경영인협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계’ 주제 강의를 통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참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관련 산업 등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최신 경제 동향과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 경제업무 소관 실·국장들은 지역 경제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대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경제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전남 서부권 지역경제인을 대상으로 ‘제2기 경제마당’을 연다.

이를 통해 기업·기관단체 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 전남도 공공 배달앱 ‘떡깨비’ 내달 14일까지 경품 이벤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14일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벤트 경품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1대, LG노트북 2대, 2020명에게 지급하는 떡깨비 1만원 포인트다.

이벤트 참여는 떡깨비 앱을 내려 받아 경품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이벤트 참여 정보 제공 동의’를 누른 후 2번 이상 주문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품 추첨은 이벤트 응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한다.

1등 당첨자 1명에게 현대자동차 캐스

퍼, 2등 당첨자 2명에게 LG노트북, 3등 당첨자 2020명에게 떡깨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신규 가입 회원에게 1만원권, 기존 회원에게 3000원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매일 1만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저렴한 중개 수수료(1.5%)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시했다.

전남도는 떡깨비 이용률을 높이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 강기정 시장, 용연정수장 긴급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일제 점검

광주시가 동구 용연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향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수장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용연정수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 뒤 “떡깨비정수장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밸브와 관망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며 “사업소의 자체 점검 외에 전문가를 포함한 2차 일제점검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용연정수장 지하에 위치한 정수지 유출밸브실 등을 점검하고 정수지 통합 유출밸브(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수지 유출밸브실은 떡깨비정수장 사고 지점과 동일한 곳이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관계자는 “용연정수장 유출밸브의 경우 연결된 관로가 2개 라인과 2개 밸브로 구축돼 있고 가운데 바이패스(배관 측로나 측관) 배관으로 연결돼 있어, 1개의 유출밸브 고장에도 다른 한 개의 밸브로 비상조치가 가능해 단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 밸브가 고장 나면 바이패스관을 통해 다른 라인과 연결해 정수된 물을 내보내면 된다”며 “2016년 지원정수장을 폐쇄하면서 기존 지원정수장 관로를

용연정수장과 연결하면서 2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시장은 긴급점검 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과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대책, 부품 교체 등 노후화 시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비상사태인 만큼 수시·정기 점검 외에도 이번엔 문제가 된 송수관로(관경 350~1500mm) 밸브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송수관로 밸브는 떡깨비정수장 24개, 용연정수장 32개로 각각 확인됐다. 이날 떡깨비정수장 12개, 용연정수장 12개 밸브를 각각 점검 완료했고, 나머지 정수장 밸브 32개는 15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영산강유역환경청·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확대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수 기자